

News

은행 예대출 일제히 '뚝'...대출 문턱 낮아진다

데일리안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출은 96.4%로 전년 말 대비 2.8%p포인트(p) 낮아짐
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 확대에는 제동이 걸린 반면, 예금과 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음

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의무비율 완화 검토

아이뉴스24

금융위·인방 "연체율 높아져 건전성 관리 필요"
빅4와 경쟁하려면 고신용자 비중 늘려야 명분도

돈 잔치 비판에...금융권, 상반기 3500명 이상 뽑는다

국제신문

은행 2288명 작년비 48% 증가...보험·카드 등도 1232명 채용
은행연합회, "최근 명예퇴직 등 인력 효율화에 따른 채용 어려움 확대에 따른 것"

네이버파이낸셜, 부동산 대출 비교 서비스 출시 본격화

조선비즈

이달 마이데이터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업' 인가
네이버 부동산 연계해 대출 상품 제공

주요 손보사 1월 車보험 손해율 80.1%...전년비 2.6%p 개선

뉴스1

1월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8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개선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봄

보험사 신용대출 금리 상승세 지속...서민 급전 창구 좁아져

미디어펜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속해서 오르면서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제기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보험사들이 금리를 올려 '디마케팅'에 나섰다기 때문으로 분석

ETF보다 커진다...NH證에 이어 KB도 '다이렉트인덱싱' 시장 진출

뉴스1

KB증권, 오는 4월 KB자산운용의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제공
경쟁력 있는 수수료...초개인화된 투자 방법인 다이렉팅 인덱싱이 ETF의 투자대안

올 상반기까지 IPO 대어 입질은 없다

아시아경제

증시 부진에 대어급 기업 줄줄이 상장 철회
IPO 건전성 제고 방안 등에 하반기 전망도 흐림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